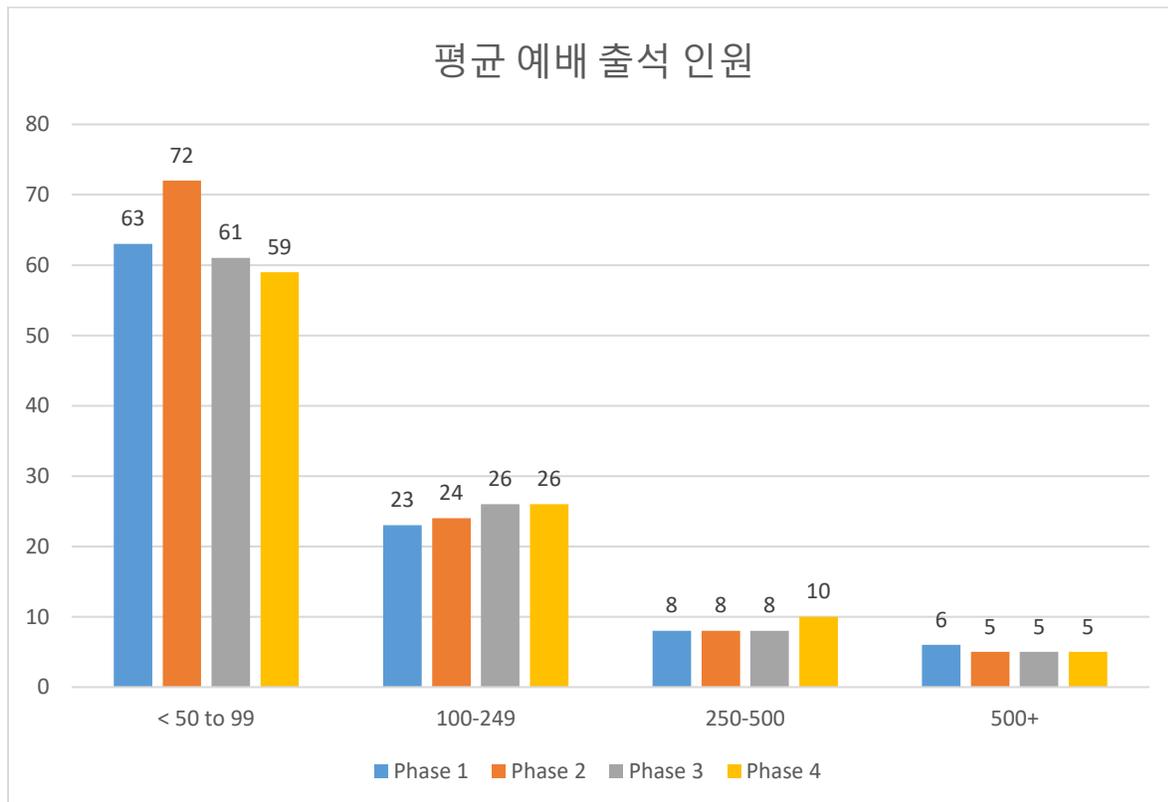


코로나바이러스-19가 교회의 끼친 영향에 관한 4 번째 설문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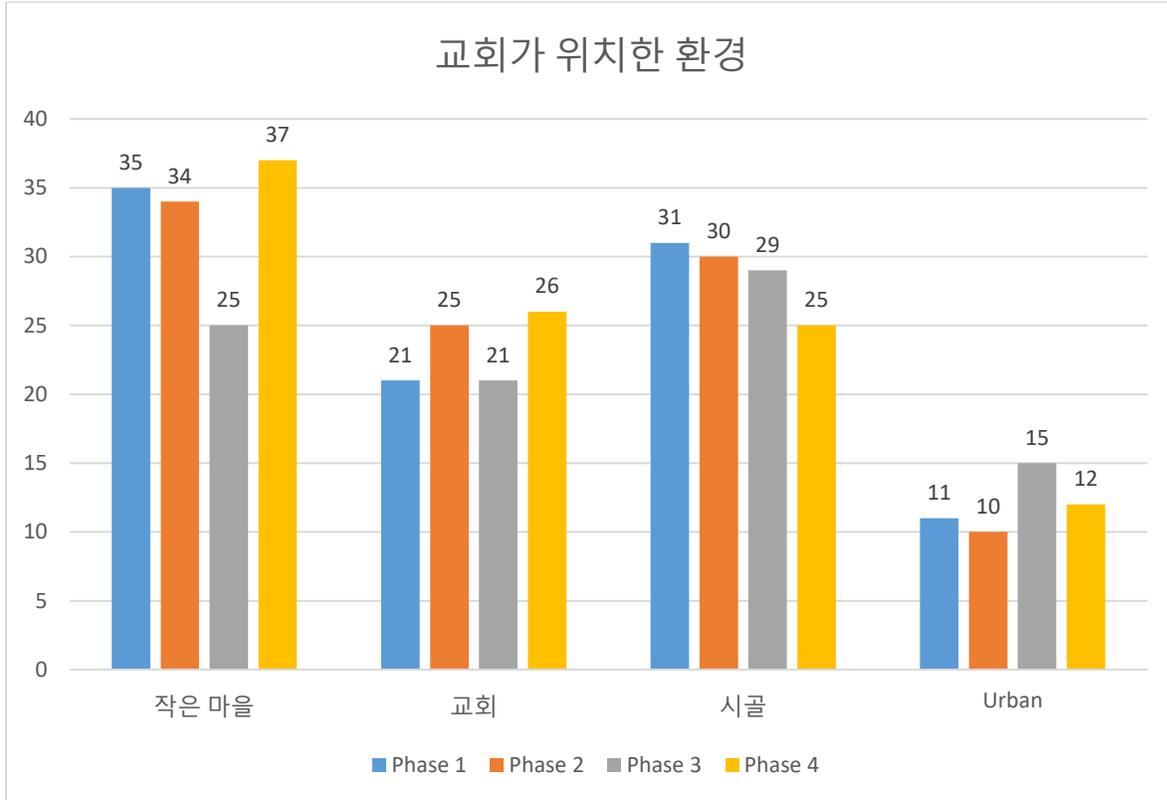
5월에 연합감리교회 공보부(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)는 지역 교회가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-19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이 설문 조사를 네 번째로 진행했다. 어떻게 교회가 예배와 사역을 계속하거나 변형시켰는지, 재정적인 영향을 받았는지, 목회자의 웰빙에 영향을 미쳤는지, 그리고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.

이 설문 조사는 서베이몽키(Survey Monkey)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2021년 5월 19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. 무작위로 선택된 11,000개의 교회를 설문조사에 초대했으며 745 교회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. 이것은 연합감리교회 전체를 얼마나 잘 대변하는지에 제한이 있는 “편의 표본”임을 기억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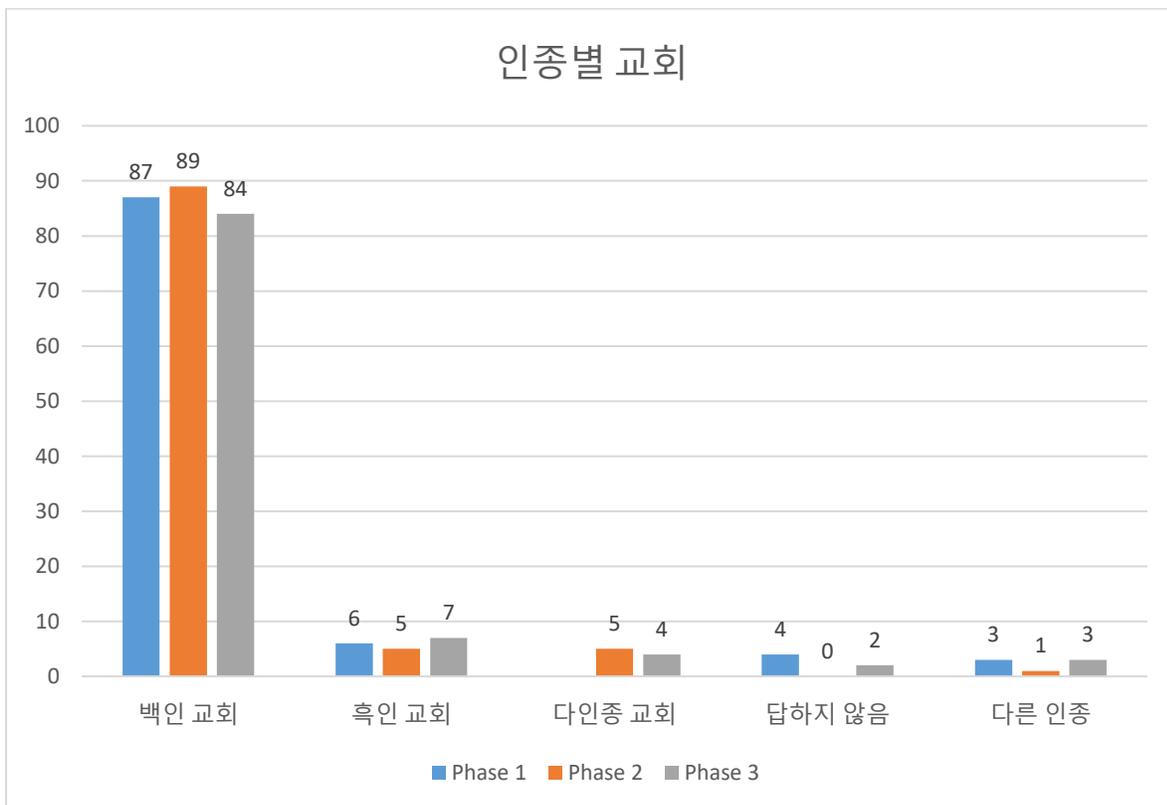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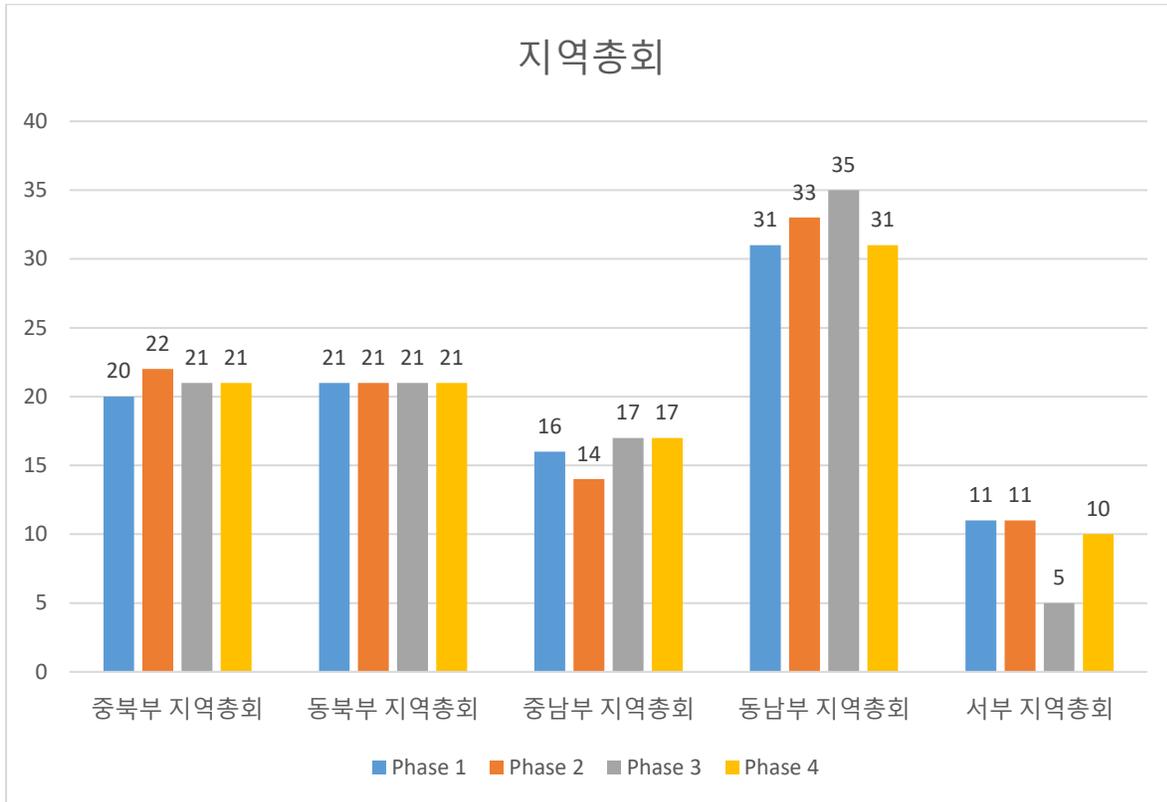
설문조사에 응한 교회의 프로필을 간단히 살펴보면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.



설문 조사를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인 테레사 파우스트에게 tfaust@umcom.org 로 문의하십시오.



설문 조사를 자세한 내용은 담장자인 테레사 파우스트에게 tfaust@umcom.org 로 문의하십시오.



설문 조사를 자세한 내용은 담장자인 테레사 파우스트에게 tfaust@umcom.org 로 문의하십시오.

설문조사의 흥미로운 부분 – 총 745 교회가 참여

- 대부분의 교회는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하고 있다.
- 전체 예배 출석률은 1년 전 1차 설문조사가 완료된 때와 비교해 다소 낮아졌다.
- 가장 큰 우려는 출석 교인의 수가 영원히 감소할지와 지도력 역할에서 받는 스트레스이다.
- 교회가 대면 예배를 열기 전에 가장 바뀌어야 할 두 가지는 1) 교인 예방접종과 2) 감독이나 연회 지도자의 지시이다.
-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현장 예배와 성인을 위한 소그룹 및 주일학교가 다시 시작된다.
- 전통적으로 교회가 건물을 사용해서 하는 사역은 식품 배급, 비영리 단체 그리고 협력 단체 순서로 교회 건물을 사용한다.
- 대유행이 계속됨에 따라 긍정적인 태도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. 응답자들은 희망적이고 축복받고 격려받는다고 느꼈다. 피로와 외로움은 증가하고 있다.
- 교인들의 헌금은 계속 나아진다. 교회 재정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.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CARES 법에 따라 지원을 받았다.

설문조사 하이라이트 - 지역총회별 차이

- 서부 지역총회는 더 온라인 예배로 가는 추세이다. 서부 지역총회는 아동/청소년 대면 활동과 소그룹/성경 공부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. 실제로 89%의 응답자가 이번 여름에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지 않거나 확실히 않다고 말했다.
- 서부 지역총회는 대면 예배를 열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주 및 지방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.
- 중북부 및 북동부 지역총회의 더 많은 교회가 CARES 법안 지원을 받았다.
- 남동부는 가장 많이 교회 건물을 예방 접종 장소로 제공했다고 보고되었다.

설문 조사를 자세한 내용은 담장자인 테레사 파우스트에게 tfaust@umcom.org 로 문의하십시오.

- “교회 대면 예배는 의무적 폐쇄에서 면제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예배”라고 동의하는 것은 지역총회에 따라 다르다. 남동부(31%), 중북부(30%) 및 중남부(27%)에서 가장 높고 서부(6%)에서 가장 낮게 동의하였다.

평균 예배 출석 인원수에 따른 설문조사 하이라이트

- 100 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는 하이브리드 예배를 드리는 큰 교회보다 더 많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다.
- 큰 교회는 “평소처럼”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된다. 대조적으로, 100 명 이하의 교회 중 거의 70%가 이번 여름에 여름성경학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.
- 전화는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주요 방법입니다. 큰 교회는 작은 교회보다 더 많은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.
- 100 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는 교회를 다시 열기 전에 교인들의 의견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. 규모가 큰 교회는 다시 문을 열기 전에 주 및 지방 정부의 행정 명령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.
- 재정적으로 큰 교회는 작은 교회만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.
- 평균 예배 출석 인원수와 상관없이 가장 큰 관심사는 재정과 출석이다. 평균 예배 출석 인원수가 50 명 미만인 교회의 65%가 CARES 법을 신청하지 않았지만, 평균 예배 평균 출석 인원수가 500 명 이상인 교회의 8%만 신청하지 않았다.
- 코로나 기간에 대안적으로 교회 건물을 쓴 용도는 교회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. 큰 교회는 육아 시설, 학교 및 백신 배포를 위해 건물을 사용했다. 규모가 작은 교회는 지원 그룹, 비영리 단체, 시민들과 및 지역 사회가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건물을 사용합니다.
- 정신적 웰빙 측면에서 피로감, 불안, 좌절감은 큰 교회에서 더 많이 느낀다.

설문 조사를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인 테레사 파우스트에게 tfaust@umcom.org 로 문의하십시오.

흑인 교회 설문조사 하이라이트

- 가장 큰 소수 민족 표본은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45 개 교회가 설문조사에 응했다. 이 데이터는 흑인 교회의 경험을 엿볼 수 있습니다.
- 흑인 교회의 70%는 평균 출석 교인이 100 명 미만이며 대부분은 남동부 지역총회에 위치하며 도시와 농촌 등에 다양하게 위치해있다.
- 51%는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27%는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모두 드리고 있다.
- 전화는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주요 방법이다.
- 흑인교회가 대면 예배를 열기 전에 가장 바뀌어야 할 두 가지는 교인 예방접종과 교인 의견이다.
- 가장 큰 관심사는 재정과 출석이다. 40%는 CARES 법 지원을 받았고 56%는 지원하지 않았다.
- 흑인 교회는 제한된 어린이/청소년 사역을 했으며 89%가 이번 여름, 여름성경학교와 관련해 개최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.
- 흑인 교회 지도자의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제일 많이 사용한 5 개 형용사는 모두 축복, 희망, 감사, 격려, 영감 등 긍정적이었지만, 단지 33%만이 지쳤다고 말했다.